

Open Doors

2019. 09. Vol. 209

박해와 선교현장

이집트 *Egypt*



오픈도어 9월 캠페인

박해받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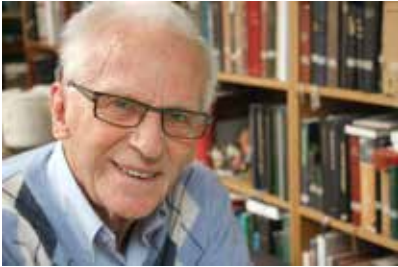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하나님의 부르심 (1)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높은 학식이 있었던 것도,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면 의연히 일어나 여러 왕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다. 그들의 사역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

오늘날 선지자의 일은 단순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은 성경을 통해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 다른 말로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첫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안다.

둘째, 사람의 삶을 바꿀 메시지가 있다.

셋째, 메시지를 전할 곳이 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읽을 수 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몸매 베일수록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돈독해진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시는지 감동을 주신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해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약 이러한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특별히 섬기도록 선택 받지 못한 사람으로, 무료하고 의미 없는 나

날을 보내는 하나님 왕국의 백수로 여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분의 뜻은 정반대일 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과정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시는 부분은 바로 오늘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잘 말해주었다.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now)에 해당하는 것이지 곧(presently)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지금에 있지 미래 어떤 때가 아닙니다. 순종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미룬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훈련이니 준비니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을 주님은 끝이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매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의 본성과 성품을 남김없이 계시하셨다. 그리고 오해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전하라, 말씀하셨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만나야 할 사람에게로 데려가실 것이다.



CONTENTS



04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V



06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이집트(Egypt)

10 박해받는 여성 캠페인: 스토리
시리아 무슬림 배경의 여성 리나(Lina) / 아이나(Aina)

13 사건과 소식

14 2019년 박해 지도

16 박해받는 여성 캠페인: 사역
박해 지역 성도들을 위한 편지 캠페인 / 여성사역자 헬렌 피셔(Helene Fisher)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23 여성 사역 캠페인



10



16

OpenDoors 2019년 09월호 | 통권 209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_이종만 목사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V

드보라

그렇게 다시 탈북하여 중국의 가정으로 돌아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흘러 딸 아이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워낙 촌동네라 딸아이가 갈 유치원이 없었다. 유치원 보내려고 하니 근처 읍이나 도시에 나가야 했다. 한편 나는 개인적으로 심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을 건너면서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빌면서 ‘들어주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기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에 와서 이리 저리 알아보니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를 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워낙 외진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시내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저런 사정이 맞아 떨어지면서 나는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나와서 집을 하나 얻었다. 아이 공부시키면서 뒷바라지를 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시내에 나와 애를 유치원에 입학시키고 집에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살던 중국 친구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먼저 자녀 교육 때문에 시내에 나와 있던 친구다. 이 친구가 시내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면서 나에게 조선족 선생님과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선생님과 집사님께서는 처음 보는 나에게 “고생 많이 했죠... 사랑해요” 하고 나를 안아주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난생 처음 듣는 터라 너무 느낌이 이상했다. ‘생판 남인데 왜 이리 반가워하고 사랑한다 하나?’ 하면서도 웬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특별히 함께 온 집사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자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웬지 남이 아닌 것 같이 친근하고 반가웠다. 선생님은 나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주었다. 영접기도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집사님께서 매일 집에 찾아오셨다. 원래 탈북자는 자기가 탈북자인 것을 숨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자기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내 처지와 비슷한 점이 많아 동질감이 생기고 너무 반가웠다. 집사님과 금세 친해졌고 많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집사님은 김일성 이야기도 해주었다. 김일성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고 교회학교도 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집사님은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탄압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가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와 당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라고 믿는다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눈물이 났다. 단순히 경제봉쇄 때문에, 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상숭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집사님의 권유로 성경필사를 시작했다.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쓰고 이어서 신약을 썼다. 처음에는 동기부여 해준다고 페이지 1장당 1원씩 줬다. 없는 살림에 1원이 어디냐 싶어서 열심히 글을 썼다. 에스더를 쓰고 신약으로 넘어갔다. 복음서를 보니 수많은 기적이 나왔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문둥병 낫는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가능한가? 하면서 필사를 했다.

그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신약을 다 쓰고 창세



기로 넘어갔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사람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전에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고 배웠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새로웠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보며 ‘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파묻는구나’ 싶었다.

그렇게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에 접어들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부분을 쓰면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10가지 재앙이 마치 북한이 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 이거 우리가 북한에서 경험한 거구나’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자연과 환경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북에 있으면서 항상 이런 질문이 있었다. ‘왜 강 사이에 두고 중국은 비가 잘 오고 곡식이 잘되는데 우리는 이 모양인가...’ 나는 그 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얻었다. 필사를 하는 와중에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이집트

Egypt



인구: 99,376,000명

기독교 인구: 9,900,000명(10%)

박해정도: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16위

수도: 카이로(Cairo)

주 박해 요인: 이슬람, 종교 민족주의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이집트는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76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6점이 오른 점수이며 조사 대상국 중 16위에 올랐다.

1. 박해의 종류

이슬람의 억압: 이집트 사회의 이슬람 문화는 차별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국가가 기독교인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집행하는 것을 꺼리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정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면 신앙을 포기하라는 큰 압력을 가한다. 기독교인을 겨냥한 무장 이슬람 단체들이 자행한 폭력적인 공격도 여러 번 있었다.

민족간 적대감: (기독교) 콥트족과 (이슬람계) 아랍인 사이에 민족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다른 많은 아랍 국가들처럼 부족주의 사고는 쉽게 민족간 (언어적)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 건물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으려 할 때 이슬람교 군중의 폭력 사태가 있었다.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에 기인한 민족간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에 소수 기독교인들은 행동을 더욱 더 조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독재정권의 억압: 기본권 존중과 다원주의는 이집트 정부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며, 이는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고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누가 박해를 주도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에서 이슬람이 출현한 이후 하류 시민으로 취급되어 왔다. 급진적인 이슬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데, 특히 IS는 이집트 내 기독교인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공언



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이집트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적인 공격을 벌여왔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계획한 복음주의 행사들은 이슬람교 측의 반대뿐만 아니라 지방 정교회의 반대에도 직면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계 및 확대 가족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3. 결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가족들로부터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정부는 또한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개종을 인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출신 배경과 상관 없이, 교회를 건설하거나 공동 예배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은 지역 사회의 그들을 향한 적개심과 군중의 폭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여러 정책적 제한으로부터 온다. 또한, 이들은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와 같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차별과 학대를 경험한다.

4. 폭력

2018년 기독교 박해 지수 보고 기간과 비교하면 기독교인에 대한(폭탄) 공격이 줄어 사망한 기독교인의 수는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7건의 살인사건이 보고되었다. 이집트의 폭력 지수는 극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의 취약한 위치를 반영한다.

이집트	2019박해보고서	2018박해보고서
보고 기간	201.11. 1~ 2018. 10. 31	2016. 11. 1~ 2017. 10. 31
사망한 기독교인	17	128
공격 당한 기독교인	54	209
체포 당한 기독교인	11	1
공격 당한 교회	25	7
공격 당한 기독교인 자산	20	21





5. 구체적인 박해의 예시

- 2017년 1월, 카이로에서 한 괴한이 기독교인들 소유한 교회와 인근 상점에서 총을 발사했는데, 11명이 그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 2018년 7월 민야(Minya)의 한 마을에서 폭도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는데, 이슬람교인 폭도들은 당시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진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분노하여 공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은 콥트 기독교

인들의 집을 공격하려는 9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오히려 폭동으로 바뀌었다.

- 많은 기독교인 소녀들과 여성들이 성희롱, 납치, 강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8년 4월에만 최소 7건의 납치 사건이 보고되었다.
- 3,500여 개의 교회가 여전히 정부의 정식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정부의 허가가 나는 경우 교회 승인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난동이 자주 발생한다.

사건과 인터뷰 1

연속적인 버스 총격 테러

2018년 11월 2일 금요일에 어느 콥트 신자의 가정은 성 사무엘 수도원에서 치러진 4개월 된 에밀(Emile)과 누피르(Noufir)의 세례식에 참석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가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갑작스럽게 총격이 가해졌다. 마스크를 뒤집어 쓴 군인들이 버스 주변에서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탑승하고 있던 28명의 가족들은 엎드려 숨었다. 버스를 운전했던 사미 나빌(Sameh Nabil)과 그의 옆자리에 앉았던 이브라힘 요세프(Ibrahim Youssef)도 엎드렸다.

“저는 승객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지만,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을 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가족폐달을 밟으며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이내 혼란에 빠졌다.

“총격이 시작되자 모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날아드는 총알을 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바닥에 내려 앉았습니다.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테러범들은 나빌(Nabil)의 버스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미냐(Minya)에서 버스 한대가 오는 것을 보자, 나빌이 운전하는 버스의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몇몇의 가족들 가운데 중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오던 버스에는 일곱 명의 가족이 탑승했었고, 그 가운데 두 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지역 기독교인들은 현장으로 달려가서 2017년 5월에 28명의 신자들을 숨지게 한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테러가 자행된 것에 대해 격분했고, 미냐(Minya) 교회 시라피온 에파트 목사는 당국에 항의했다. “저는 모든 희생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의 신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신앙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이나 이러한 공격이 자행되었는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건 당일 검문소에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이 지난 후에 이집트 당국은 19명의 IS가 개입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IS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



히고 이집트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카이로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7명의 기독교인 목숨이 희생되었다.

사건과 인터뷰 2

교회 합법화의 반대로 무너진 8개 교회

이집트에 약 3,500여 개 교회가 정부의 정식 설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은 때때로 교회의 설립을 반대하는 타종교인들과 종족으로 인해 폭력 사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2018년 1월 정부가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들의 승인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8개의 교회를 합법화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세력들이 룩세르(Luxor) 지역에서 8개의 교회를 파괴했다.

한 정부의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 승인 받지 못한 교회가 국가나 정치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매우 과격한 보수적 무슬림들이 북부 이집트에서 교회의 승인을 반대하고, 지역 공무원들을 자극해서 교회 파괴와 폐쇄를 선동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합법적 승인에 반대하는 16세에서 26세의 많은 무

슬림 청년들은 교회의 입구에 집결해서, “알라는 위대하다”, “우리 이슬람 마을에 교회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과격한 구호를 외치며, 교회의 창문과 입구를 부수기 시작했다. 경찰은 교회로 접근을 막기 위해 저지선까지 설치했다. 결국 4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었으며, 15km나 떨어진 마을로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한 신자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 지역 7개의 모스크에서 무슬림들은 기도과 예배의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작은 장소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무슬림의 시위가 교회를 문닫게 했습니다. 법이 온전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은 불법적 폭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후원: 우리은행 1005-901-884982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박해 받는 여성 캠페인 스토리

스토리 1

시리아 무슬림 배경의 여성 리나(Lina)

리나(Lina)와 그녀의 두 딸은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한때 라카(Raqqa)에서 살았으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오픈도어 사역이 펼쳐지는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개종으로 인한 위협을 늘 감지하며 살고 있다.

12년 전에 리나의 남편은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리나는 라하프(Rahaf)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남편 잃은 여인이 따라야 할 이슬람의 관습 대로 살아가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리나에게 이

것은 매우 부당하게 느껴졌다.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는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매우 취약하고, 자녀들의 문제는 엄마들에게 약점이다. 주변의 압력이 거세지자, 리나는 라하프를 임신한 채로 라카(Raqqa)를 떠나 시리아의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 새로운 도시에서 리나는 이슬람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심지어 교회에도 나가게 되었다. 리나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성경 때문이었다.

“제가 성경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언제나 놀라운 평안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코란을 읽게 된다면, 당신은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폭력과 살생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른 편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치게 하라는 것처럼, 성경에는 용서와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와 여인의 치유를 보면서, 예수님은 여성을 열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딸도 엄마와 같이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리나는 남편의 가족이 아이들을 빼앗아갈까 염려한다. 개종한 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위험이 상존해 있음으로 인해 삶은 늘 경계의 연속이다. 리나는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고 나서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와 함께 사역하는 가정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희망의 센터”는 오픈도어가 내전으로 파괴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기독교 재건을 위해 지역 교회를 통해 운영하는 사역기관이다. 피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자립을 위한 사회경제적 활동은 물론, 성경공부 제자훈련, 리더십 훈련, 전도활동, 아이들을 위한 학교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한다.

리나는 아이들 교육 모임인 “클럽”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리나는 “희망의 센터”을 통해 내전으로 상처 받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다.



스토리 2

카메라 렌즈의 눈울 통해

“무엇이 날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절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당신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뿐입니다.”

아이나 (Aina)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자신을 ‘반역자’라고 말한다. 그녀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녀는 종교 의식에 저항했고, 가족들의 종교의 명으로부터, 그 가운데 여성의 역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왜 나는 내 자신을 가린 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녀는 많은 기대와 종교의식에 대항하여 싸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성인이 되어 두 딸의 엄마가 되고 나서였다. 이것은 그녀의 강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어떻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이 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기독교로 개종하려던 것은 절대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 곁에 함께하면서, ‘만약 당신이 주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는 것 근처에라도 가려면 제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야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항상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겁주려고 늘 지옥이 어떤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귀는 잘리고, 영원토록 매일매일 우리의 몸 안에서부터 우리를 태우기 위해 뜨거운 기름을 우리 배 속에 붓는다고 말이죠.”
“무엇이 날 그렇게 이끌었는지 나는 절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당신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뿐입니다.”

오늘까지, 아이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몇 년 전에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녀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강제 구속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아이나의 딸들이 엄마가 크리스천이 된 것을 알았을 때, 매우 화를 냈다. 어떻게 엄마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며. 딸들은 이 사실을 비밀로 지켜야 했다. 그들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야 했다. 모든 것이 발각된다면, 이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될 것이다. 아마도 아이나와 딸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이나의 강한 외모 아래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 그녀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고 그녀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이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주시고, 그녀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역 캠페인 후원: 신한은행 100-027-2191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사건과 소식

네팔(Nepal)

7월 인도에서 경찰이 외국인들을 체포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네팔에서도 발생했다.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 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인해 체포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3명의 외국인을 기독교 전도 혐의로 체포했다. 서부 카스키(Kaski) 지역에 위치한 포카라(Pokhara) 호수 지역과 마헨드라푸르(Mahendrapur)에서 체포가 발생했다. 2019년 7월 23일, 73세의 한국인 조유상이 기독교 문서 배포 혐의로 체포되었다. 같은 날 제로 세키야(Jero Sekiya)와 레이에코 세키야(Reieko Sekiya)라는 일본인 부부가 체포됐다. 그 한국인은 새로운 마을에 살아 왔으나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빨리 풀어주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인도(India)

7월 중순 수하스 완데르(Suhas Wander) 목사는 미국에서 온 손님 3명과 여성 통역관 3명과 함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지역 바불 가온(babhul Gaon)에서 안내했다. 그들은 갑자기 약 40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기 전에 그들을 심하게 다루었고 항의했다. 그들은 그들이 무고한 기독교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기독교로 개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일곱 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 경찰서를 에워싸고 적절한 서류도 없이 그들에게 개종과 전도하는 것에 대한 법적 혐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외국인들의 석방을 원했지만, 폭도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외국인 침입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시리아(Syria)

7월 11일 목요일에, 동부 시리아의 카미술리(Qamishli)에 있는 시리악(Syriac) 교회가 차량 폭탄 테러를 당했다. 사망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 언론은 11명의 민간인이 다쳤고 교회와 인근 건물들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사는 알-우스타(Al-Wusta) 지역에서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은 매일 오후 5시 30분기도회가 끝나기 직전인 오후 6시에 일어났다. 현지 주민들은 몇 분 뒤에 테러가 발생했다면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러의 배후에 IS가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지만 아직 가해자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 건물과 집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리트레아(Eritrea)

2018년 7월 8일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아하메드(Abiy Ahmed)가 에리트레아에 화해 목적 방문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홍해 지역 국가들의 진진정한 변혁과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희망으로 인해 이뤄졌다.

기독교인들은 지난 1년 동안 그 어떠한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오랜 시간 경고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고 지난달에는 아스마라(Asmara) 지역에서는 140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당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수단과 같은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는 시위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몇 주 동안 SNS를 차단함과 동시에 일부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고, 무작위로 사람들을 체포하기까지 했다. 국경 폐쇄에도 불구하고, 6만 명 이상의 에리트레아 사람들이 9월 이후 에리트레아를 떠나 에티오피아에 난민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 1 북한
- 2 아프가니스탄
- 3 소말리아
- 4 리비아
- 5 파키스탄
- 6 수단
- 7 에리트레아
- 8 예멘
- 9 이란
- 10 인도
- 11 시리아
- 12 나이지리아
- 13 이라크
- 14 몰디브
- 15 사우디아라비아
- 16 우즈베키스탄
- 17 이집트
- 18 미얀마
- 19 라오스
- 20 베트남
- 21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2 앙제리
- 23 투르크메니스탄
- 24 말리
- 25 니제르
- 26 카메룬
- 27 콩고
- 28 에티오피아
- 29 타지키스탄
- 30 인도네시아
- 31 요르단
- 32 네팔
- 33 부탄
- 34 카자흐스탄
- 35 모로코
- 36 브루나이
- 37 튀니지
- 38 카타르
- 39 멕시코
- 40 케냐
- 41 러시아
- 42 몽골
- 43 우크라이나
- 44 오만
- 45 쿠웨이트
- 46 말레이시아

2019 어린이 박해지도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 사이즈)

ADVOCACY • BELLES • BOOKS • BIBLE TRAINING • BICYCLES • BLANKETS • BEDDING • BUCK-MAKING • CLOTHES • CDS • CHRISTMAS GIFTS • COMMUNITY DEVELOPMENT • COUS • CHURCH BUILDINGS • CHILDREN'S CAMPS • COUNSELLING • CHURCH GARMENT MAKING • DISCIPLINER • DEAF FELLOWSHIP • EMERGENCY AID • FISH FARMING • GROCERIES STORE • HAIR DRESSING BUSINESS • HEATING • INTERNET PROGRAMMES • JOB TRAINING • JEWELLERY MAKING • KEBAB RESTAURANTS • LEGAL SEMINARS • LETTER CAMPAINS • LIBRARY BOOKS • LITERACY TRAINING • LOANS FOR BUSINESS START-UPS • MATRESS MAKING • MUSHROOM FARMING • NECKTIES • HANDICRAFTS • NECESSITIES • NUMERACY PROGRAMMES • ORNAMENTS • FANER • PERSONAL FAMILY SUPPORT • PUMPKIN FARMING • PLASTIC FACTORY • RASID ACTION TEAMS • KARIO BROADCASTS • REBUILDING HOMES • SCHOOLS • SUNDAY SCHOOL MATERIALS • SEWING CLASSES • SAFE HOUSES • SCHOOL UNIFORMS • SETTING UP A SHOP • TRAVEL THEATRY • T-SHIRT PRINTING • UTENSIL DISBURSION • VEGETABLE CULTURE • WIDOWS ASSISTANCE • X-RAY CLINIC •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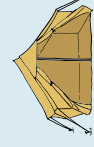
전세계 2억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는 매우 신한 종류의 따돌림(영파)을 말하며, 때로 폭력이 따릅니다.
이 지도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가장 어렵고 위험한 50개 나라를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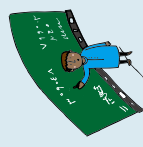
오프도어는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으며, 그들은 혼자서 아닙니다.



매년 오프도어는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2백 5십만 권 이상의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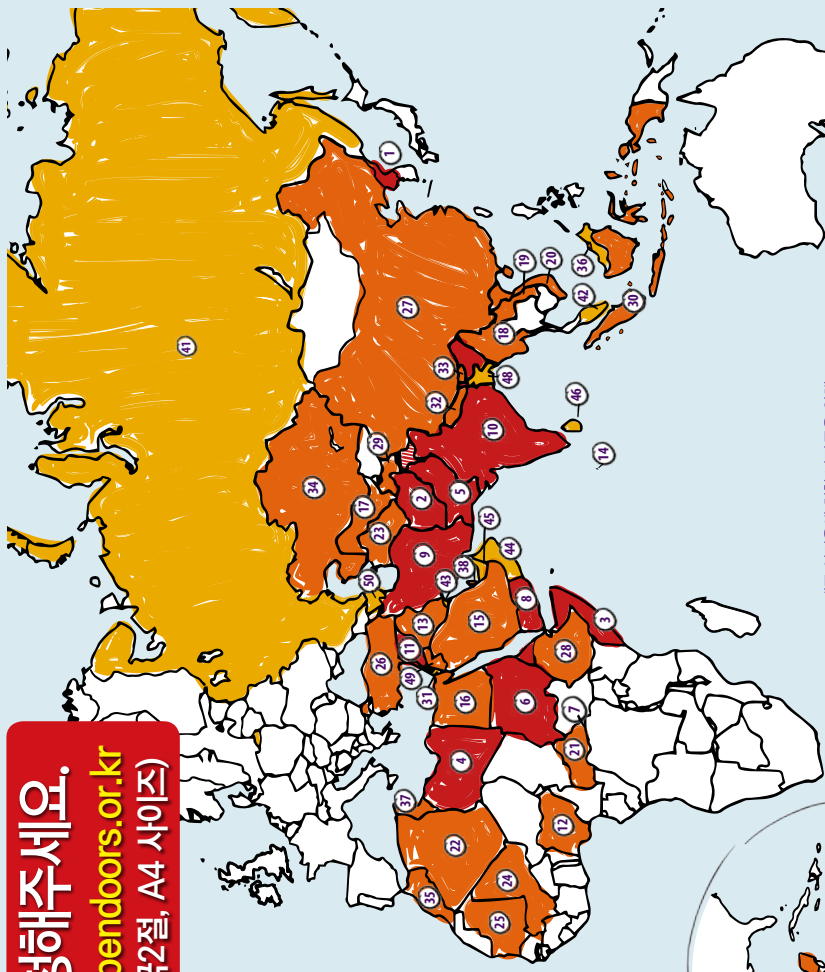
매년 오프도어는 집과 가족들을 잃은 백 만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 물, 집, 그리고 의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프도어는 백 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이겨 낼 수 있는 지식과 힘, 기술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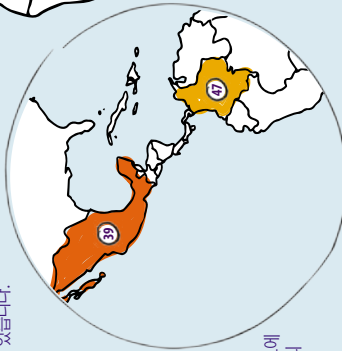
전세계 백 만명의 사람들이 중동지역 화안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고, 이것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박해 받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게 어떨까요?
여기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외도를 때: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세요.
제가 무너질 때: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종을 떠나 나쁠 때나: 재발 저의 곁에 있어주세요.
이 세상엔 주님의 것이요,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픈도어 강의를 신청해주세요

강의 주제

- ▶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실상
- ▶ 북한 기독교인 간증
- ▶ 월남 기독교의 유산과 북한교회
- ▶ 기타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요청하기' 클릭
전화: 02) 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한국 오픈도어 정기후원 안내

소식지 신청 ()		300기도용사 신청 ()		
지 역	선 택	사 역	선 택	후원금액
북한		성경배달		
중앙아시아		제자훈련		
아시아		사회경제 지원		
중동		어린이와 청소년		
아프리카		여성과 치유		
라틴 아메리카		난민과 변호		
이 름			전화번호	
이 메 일			출 금 일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주 소				
은 행	은 행 계 좌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 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박해 받는 여성 캠페인 사역

사역 1

박해 지역 성도들을 위한 편지 캠페인

오픈도어는 2017년 나이지리아 북부 마이두구리(Maiduguri)의 자국 난민들을 위한 정착지에서 에스더(Esther, 20)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되어 3년 동안의 참혹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딸 레베카와 대담한 탈출을 시도하고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을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편견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 오픈도어는 지난 2년 동안 에스더에게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상담과 회복훈련에 참가시켰다.

오픈도어는 에스더가 마이두구리(Maiduguri)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에 우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달려와 우리를 껴안고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전 잘 지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순조로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쉬고

난 후 학업에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계속할 작정이예요. 하나님이 저를 돕고 계세요. 그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저는 다른 많은 소녀들처럼 시작도 하지 못하고 희망을 잃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어요,”

오픈도어는 전 세계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녀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그 가운데 특별한 편지도 있었다. 영국 외무장관 제레미 헌트(Jeremy Hunt)가 보낸 격려의 편지도 있었다. 그녀는 제레미 헌트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아는지 물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정말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설명을 들은 에스더는 이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환하게 웃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편지를 읽을 때 얼굴에 나타난 환희가 넘쳐났다.

에스더는 바로 손으로 답장을 썼다.

“친애하는 선생님, 저는 오픈도어가 제게 당신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이두구리로 방문했을 때 많이 놀랐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저를 격려의 말들로 위로하였고 사랑 받음을 느껴요. 정말 당신을 축복해요. 부디 계속해서 저와 제 딸 레베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사랑과 격려의 편지들이 전달되었다. 후원자들로부터 온 편지들이 든 가방을 그녀에게 건네자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는 듯이 물었다.

“이거 뭐예요...” 그녀가 궁금해하고는 가방을 펼쳐보자 “우와! 아름다운 카드들이네!” 라고 말했고 아름다운 가방 안에는 더욱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오픈도어는 박해 지역 성도들을 위한 편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해의 고통을 겪은 그들이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고난의 과정에 함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해 한다. 에스더는 전달된 편지를 통해서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위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했다. 그녀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알고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박해 지역 성도들을 위한 편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해의 고통을 겪은 그들이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고난의 과정에 함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해 한다.





사역 2

여성사역자 인터뷰

헬렌 피셔(Helene Fisher)

국제 오픈도어 여성사역 책임자

1. 박해 받는 여성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만나는 여성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이상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로 새로운 신앙을 가지면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려지고 가족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



들은 여러 차례의 성폭행과 폭력배들의 강간 등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목전에서 남편이 살해되는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이 목전에서 살해되는 사건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처들은 그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런 극단적 아픔과 좌절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앞으로 생존하고 전진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2. 박해 이후의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에게 가장 커다란 도전은 매일의 삶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버려지고,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과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 가운데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많



아서 읽거나 쓰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3. 어떤 사역이 이들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역 교회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와 함께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로 사역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치유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둘째, 여성의 내적 치유를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사역자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이러한 사역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4. 우리는 어떻게 박해 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박해 받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상처와 핍박을 받고 있는 여성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눈에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역 캠페인 후원: 신한은행 100-027-2191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2019 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북한 캠페인

북한에 복음과 떡을 보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어린이 및 청소년 캠페인

박해의 희생양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봅니다.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한국오픈도어선교회)

“중동에 희망을”(Hope 4 ME) 캠페인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 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지 역: 서울 및 인근지역

이메일: odsk@opendoors.or.kr
기 간: 5년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계 좌: 100-027-607588

은 행: 신한은행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박해퍼즐

9월호



		2					
1						4	
					5		
		3					
9					6	7	
10		11					
					8		
		12					

● 가로열쇠

- 2019 기독교박해지수 48위. 동남아 국가이며, 기독교 인구는 약 0.5% (1억6천만명 중 86만명)이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다. 박해의 주요인은 이슬람 탄압이며,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 이슬람 극우세력 및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 시달린다.
- 중근동 지방의 광야나 사막 등지에서 쉽게 발견되는 관목으로써 잔가지가 많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준다.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시내 산으로 도주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나무 아래서 더위를 식혔다. (열왕19)
- '여우들의 거처'란 뜻.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간 곳이다. (삼상9)
-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 '강한'(strong), '능한'(mighty), '앞에 있는'이란 뜻으로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God)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 (초성힌트 : ㄱㅇㅎ)
- '물'이란 뜻. 바벨론 포로 당시 고국으로 귀환하기에 앞서, 예스라는 유대인들을 이곳에 모은 뒤 금식하며 예루살렘까지의 길고 험한 여정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간구했다. (스8)
- 아브라함의 조카 브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여동생이다. 밧단 아람 출신으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 구약시대 이곳은 성전(성막) 안에서도 가장 안쪽의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말한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다.

● 세로열쇠

-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의 합성어이다.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던 중 이 폭풍을 만났다. (행27)
-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농사)의 신이며, 가축 때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샘족 최고의 신이다.
-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며,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그핫 자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 '그렇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란 뜻.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요 음녀인 고멜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붙여준 이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범죄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띤다.
-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다. (막 5:35-43)
- 1년생 잡초로 생장 초기에는 그 외형이 밀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 독성이 강해 활용 가치가 없어 추수 때가 되면 뿌리째 뽑혀 불에 태워진다. 예수님께서 000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최후에 임할 불심판을 가르치셨다.

□
지
난
주
정
답
□

		팔	레	스	타	인
					작	
나	그	네			마	르
아			열	심	당	
만	왕	의	왕			돕
			기			는
				광	배	교
	느	헤	미	야		필

□ 8월호 당첨자 □

김*화(9060), 정*교(김*미)(3256), 김*화(0624)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9월 10일)



2019 선교대회

“오픈도어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악화일로에 있는 인도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의 싸움에 관한 증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사: 알프레드(Alfred) 목사

주제: 인도 교회 박해와 사역

일시: 2019년 10월 21일(월) 저녁 7시

장소: 남현교회(1호선 개봉역 2번 출구, 5분 거리)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170-18)

2019년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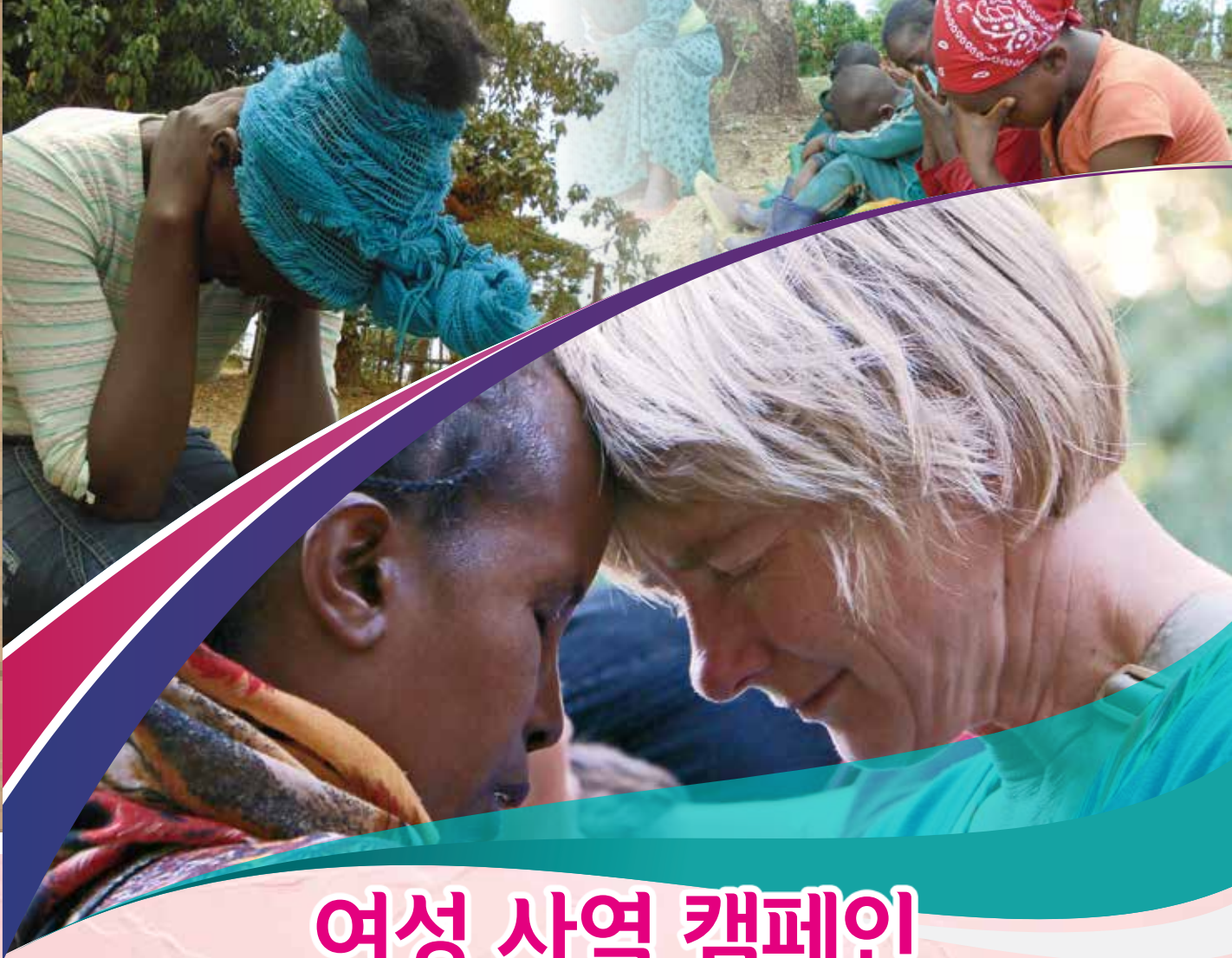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여성 사역 캠페인

가족의 상실과 가난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과 싸우는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과 함께해주세요.

여성 사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사역자 훈련

치유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 사역에 대한 목회자 훈련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